

크로아티아, 2연속 월드컵 메달 획득

모로코와 3~4위전서
오르샤 결승골 2-1 승리

역대 월드컵 3~4위전
유럽·남미팀 승리 독식

크로아티아가 미슬라프 오르시치의 귀중한 결승골로 2018년 러시아 대회에 이어 2연속 월드컵 메달을 따냈다. '아틀라스의 사자' 모로코는 아프리카 팀은 물론 이슬람권 국가로는 최초로 4강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지만 끝내 3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크로아티아는 18일(한국시간) 카타르 알 라이안외 칼리파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3~4위전에서 1-1 동점이던 전반 42분 오르시치의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내며 2-1로 이겼다.

이로써 크로아티아는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준우승에 이어 2연속 월드컵 메달을 차지했다. 또 카타르 대회에서도 크로아티아가 3~4위전 승리를 차지함에 따라 유럽과 남미팀이 3위를 차지하는 공식이 그대로 이어졌다.

미국이 1990년 대회에서 비(非)유럽 및 남미팀으로는 유일하게 3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3~4위전이 없었다.

반면 모로코는 1990년 대회 미국과 2002년 대회 한국에 이어 세번째로 4강에 오른 비(非)유럽 및 남미팀이 됐지만 크로아티아에 밀려 끝내 메달을 차지하지 못했다.

크로아티아와 모로코는 전반부터 공격 축구를 펼치며 손에 땀을 쥐는 접전을 벌였다. 두 팀은 전반 10분이 되기도 전에 한 골씩 주고 받으며 난타전 양상을 보였다. 크로아티아와 모로코 모두 프리킥 상황에서 한 골씩 주고 받았다.



크로아티아의 미슬라프 오르시치가 18일(한국시간) 카타르 알 라이안외 칼리파 국제 경기장에서 열린 모로코와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3~4위전에서 전반 42분 골을 넣은 뒤 포효하고 있다.

전반 7분 로브로 마이에르가 차준공을 이반 페리시치가 헤더 패스로 연결했고 이를 요슈코 그바르디올의 다 이징 헤더로 마무리하며 크로아티아가 기선을 잡았다.

하지만 불과 2분 뒤 모로코의 프리킥 상황에서 동점골이 나왔다. 그바르디올의 파울로 얻어낸 프리킥 상황에서 하킴 지예시가 차출된 공이 마이에르의 머리를 맞고 아쉬라프 다리의 헤더골로 연결됐다.

1-1 동점이 된 상황에서 크로아티아와 모로코는 지키기보다는 공격 일변도로 경기를 펼쳤다. 골은 나오지 않았지만 손에 땀을 쥐는 대접전을 벌였다. 어느 쪽이 먼저 골을 터뜨려도 하

나 이상할 것이 없는 양상이었다.

결국 크로아티아가 전반 42분 오르시치가 골을 만들었다. K리그 전남 드래곤즈와 울산 현대 등에서 오르샤라는 이름으로 활약했던 오르시치는 마르코 리비치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오른발 슈팅을 날렸고 공은 오른쪽 골대를 맞고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

크로아티아와 모로코는 후반에도 양보가 없었다. 크로아티아도 한 골 앞섰다고 해서 자질 생각이 없었다. 한 골이라도 더 넣고 편안하게 경기를 풀어가려 했다. 모로코도 동점골을 노리며 크로아티아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모로코는 후반 22분 안에 교체카드 5장을 모두 소진하며 크로아티아의 골문을 거세게 두들겼고 크로아티아 역시 후반 21분까지 3장의 교체카드를 쓰며 맞불을 놔다. 모로코가 조금 더 크로아티아의 골문을 위협했지만 그때마다 골키퍼의 선방이 이어졌다.

추가시간 6분이 선언된 가운데 모로코는 마지막 남은 힘까지 쥐어쥘지만 끝내 크로아티아의 골문을 열지 못했다. 크로아티아는 추가시간 4분 오르시치를 빼고 크리스티안 아카치를 투입하며 마지막 지키기에 나섰고 결국 3위를 차지했다.

/뉴시스

손흥민 WC 16강 진출 앞장… 토트넘, 3여억원 보상금 챙겨

구단 보상금으로 총 37여억원 받을 예정

EPL 구단 중 맨시타가 72억원으로 가장 많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가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의 16강 진출에 앞장선 손흥민의 활약으로 3억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 16일(한국시간) 영국 카타르인스는 EPL 20개 구단이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조직위원회로부터 받

는 선수 보상금을 공개했다.

FIFA 월드컵 조직위는 카타르월드컵 보상금으로 총 2억900만 달러(약 2,740억원)를 마련했고, 선수 1명당 월드컵에 참가하는 기간 하루 1만 달러(약 1,306만원)를 책정해 소속팀에 주기로 했다.

손흥민은 월드컵을 위해 22일간 토트넘을 떠났고, 이에 토트넘은 손흥민

보상금으로 22만 달러(약 2억8,70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지난달 초 안와골절상으로 수술을 받은 손흥민은 같은달 15일 토트넘을 떠나 카타르 도하로 이동했다.

손흥민은 조별리그 H조 2위로 토너먼트에 오른 뒤 브라질과 16강전을 마치고 지난 7일 대표팀과 귀국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등 짧은 휴가를 보내고 14일 영국으로 돌아왔다.

주말을 제외한 총 22일간 팀을 떠난 것이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포함해 위고 요리스(프랑스), 히사롤리송(브라질), 해리 케인(잉글랜드) 등 11명이 월드컵에 참가해 총 232만 파운드(약 37억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EPL 구단 중에선 맨체스터 시티가 가장 많은 450만 파운드(약 72억원)의 보상금을 챙기게 된다.

홀리오 알바레스(아르헨티나)는 결승에 올랐고, 베르나르도 실바와 주앙 칸셀루(이상 포르투갈)는 8강까지 진출했다.

참고로 결승까지 뛴 선수는 최대 30만 파운드(약 4억8,000만원)의 보상금을 팀에 안겨준다.

/뉴시스



지난 16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3층 강의실에서 전북도가 장애인스포츠클럽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발판 마련을 위해 경기단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사진=전북도장애인체육회 제공)

변화·혁신 '머리 맞대다'

전북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경기단체 활성화 워크숍
직장운동경기부 창단·도내 전용체육관 건립 등 제기

전북도 장애인 체육회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다.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회장 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16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3층 강의실에서 전북도가 장애인스포츠클럽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발판 마련을 위해 경기단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28개 종목별 경기단체장 및 실무자 등 50여명이 참석하며 지난 10월 울산에서 열린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과평가·경기단체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 장애인체육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장애인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선수 타 시도 유출방지를 위한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창단, 우수선수 지원금 확대, 전문지도자 배치와 훈련시설 확충, 전라북도 장애인전용체육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장애인체육회 이경영 사무처장은 경기단체 활성화와 역량강화, 우수선수 유출방지대책, 보다 나은 훈련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경기단체에서는 우수선수 육성 및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전라북도장애인스포츠클럽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어김없이 찾아온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전주스포츠클럽

연말 맞아 연탄 기증

전주 평화동 한미탕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전주스포츠클럽(회장 오광근)이 연말을 맞아 전주연탄은행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200만원 상당의 연탄 2,500장을 기증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사)전주스포츠클럽 오광근 회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한파에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증식을 가지게 되었다"며, "추운 겨울, 소외된 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일이며, 정말 행복한 일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사)전주스포츠클럽은 농구,



배드민턴, 탁구, 당구, 헬스, 요가, 다이아트 댄스, 배구, SNPE 등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 여자농구, 여자배구, 남자탁구, 유도조동부, 초·중등부 컬링팀을 위탁 운영하며 전문선수양성과 엘리트 체육발전에 힘쓰고 있다.

/김경수기자



전주매일 캠페인